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가정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5.6월
1985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교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는 주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불완전한 것이 교정되어야 한다.

장 성철 목사님(현 서울 서대문교회 원로목사)은 어릴 때 주일인 줄 모르고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너 어디 갔었느냐?”

“어머니, 고기 잡으러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느냐?”

“....”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일이였다.

“너 이 고기를 어디서 잡았지?”

“저 새파동 못에서 잡았습니다.”

“그럼 이 고기를 새파동 못에 가서 놓아주고 오 겠느냐? 우리 집에서 아주 나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

머리를 숙여 한참 생각 끝에 바구니를 메고 나갔다. 벌써 해가 저서 캄캄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이라 울면서 달렸다. 짐승소리, 새소리, 벌레소리에 놀라 까무라칠 지경 이었다. 못에 가서 바구니의 고기를 다 쏟았다. 돌아서려고 하니 어둠 속에서

“성찰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성찰아!”

분명히 어머니의 음성이었던 것이다.

“성찰아!”

또 부른다.

“예 어머니!”

하고는 그 품에 기대어 울었다.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 안고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얼마후 어머니의 말씀이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하고 꼭 껴안아 주었다.

그 후로 오늘까지 주일만 되면 어머니의 생각이 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한다.

부모가 만일 자녀의 학교 교육에만 열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신앙 교육에 무관심하면, 그들의 생활에서 감사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 불신의 광야를 헤매는 고독한 젊은 영들이 생명의 떡보다 출세의 돈을 쥐어 준 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에게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가?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루 두 번 이상은 기도하고 매일 성경 한절이라도 읽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전도 및 탐험에 크게 헌신한 리빙스턴은 제1회 아프리카 전도여행을 마치고, 1856년 12월9일 귀국하여 여행기를 써서 발표했는데 그것이〈남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전도 및 탐험기〉였다.

리빙스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상도 하지 않았던 돈을 얻게 되었는데, 1만2천 부를 인쇄한 것이 즉시로 1만3천8백부의 주문이 쇄도하여, 재판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이 돈을 대부분 전도여행에 쓰고, 나머지 얼마 안되는 것을 자녀의 교육비로 두었다.

리빙스턴이 그렇게 한 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남겨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불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주의 말씀대로만 자녀를 교육하면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五 大 目 標

天國일꾼養成
北 韓 宣 教
民 族 福 音 化
世 界 宣 教
聖 殿 建 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3권 제 5 호

통권 제129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
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피수하는 교회가 된
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5·6월호

차 례

권 두 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 간	2
이달의말씀	성도의 내인관계	김창인	4

기획특집 / 교회와 가정

①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김원남	6
② 부모를 받드는 그리스도인의 효	윤용규	9
③ 부모와 자녀와의 신앙적 대화	구명신	12
가정의달 서간문		
① 엄마가 아들에게	강순희	18
② 아빠가 딸에게	김상덕	18
③ 딸이 아빠에게	손에스터	19
④ 아들이 엄마에게	조요한	19
특별기고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	김영삼	20
기획연재 ③ 교회성장과 교회교육	조영길	26
모범가정탐방 "김형선 안수집사댁"	편집실	15
가정의달 기도문 / 성도의 가정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송현창	14
충현칼럼 / 주인의식	최석주	25
신앙도서 소개 / 영적 침체	정관호	29
선교사 · 선교소식	해외선교회	16
이달의 교우동정 (등록 · 결혼 · 별세)	편집실	32
교회소식	편집실	30
5월의 행사 및 편집후기	편집실	34
독자의 편지 및 독자에게 드리는 글	편집실	33



□ 표지사진 설명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 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다. 그런의미에서 이번호 표지는 교역자및 교구 담당 목사와 장로, 그리고 편집회의 전원일치의 추천을 받은 김형선 안수집사 댁을 표지로 삼았다. (관련기사 15면 참조)

성도의 대인관계

김 창 인 (목사·본교회 당회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딤후 5:1-2)

1. 늙은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딤후 5:1-2)

성경은 말하기를 늙은 분을 대접할 때에, 남자로 나이 많으신 분은 아버지처럼 모시고, 여자로 나이 많으신 분은 어머니처럼 모셔야 한다고 하였는데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꼭 알고 모셔야 합니다.

그 분에게는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은 지식을 통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식을 통한 지혜를 지나치게 뽐내지 말고 나이 많으신 분들의 경험을 통한 지혜를 귀하게 여겨 나이 많으신 분 앞에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가만 계세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할아버지가 지금 박사인 나하고 지식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러면서 나이 많으신 분을 무시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요사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간적으로 지식이 젊은이만 못해도 30년, 70년, 사시는 동안에 쓴맛 단맛 다 보아 경험이 쌓이고 쌓여

둘째로,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 조심하여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대할 때에,

“아이고, 지금 로켓이 날르는 시대에 늙은이들이 옛날 말타고 다니던 봉건 사상을

가지고 고집불통이니, 세대차야.”

충현교회 젊은 이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이 많으신 분을 정성껏 대접해야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정성껏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내 아들 딸을 돌보며 키우는 것의 10분의 1만 시간과 돈과 정성을 내놓으면 효자 못되는 법이 없겠습니다.

2. 젊은이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딤후 5:1-2)

젊은이를 형제같이 여기고, 여자 가운데 젊은이는 자매(누이동생)처럼 여기라고 본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형제와 자매처럼 여기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화목하는 사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끼리끼리는 좋아하지만 또한 끼리끼리는 싸움도 많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에는 국경이 있으나, 하늘나라에서는 국경이 없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싸우지 말고 형제와 같이 화목해야 합니다.

둘째로, 경쟁의식이 없는 형제가 되라는 말입니다.

“엄마, 형은 이것을 주고 난 안 주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할지언정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원망이나 시기나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쟁의식은 팔전할 것 같으나, 시기심을 일

으키고, 화목을 깨뜨리며, 분쟁을 일으키고, 협력을 못하여 피차에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경쟁의식은 형제와 교인간에는 금물입니다.

세째로, 형제간에는 선후배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형은 동생을 보호하고 교훈하고 위로할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형님이나 언니되시는 분이나 신앙면에서 선배되시는 분은 후배를 대할 때에 •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 바른 진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 잘못할 때에는 깨달아 알도록 권면해야 되고 • 쓰러지고 엎드려졌을 때에는 사랑으로 토닥거리 위로하며 선배의 할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동생되는 분은 형님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20분이고, 장로님이 80분입니다. 목사 세계나, 장로 세계에서 꼭 선후배의 도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 선후배의 예의를 지킬 줄 모르면 교회행정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장로는 똑같은 장로인데 못할 말이 뭐 있나?” “목사는 똑같은 목사인데” 이것은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먼저 안수받은 목사님, 먼저 장립받은 장로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면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고 교인들에게 높임을 받는 날이 옵니다.

형제같이 대하라는 말은 선후배의 관계를 알라는 말입니다.

네째로, 결의형제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딤후 5 : 2 하)

성도끼리는 형제처럼 지내라니까 “우리 교회는 의형제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먼, 아무개는 여자지만 똑똑하니까 내가 누나를 삼고 아무개는 남자 가운데 훌륭하니까 내가 오빠를 삼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 금물입니다.

인간적으로 결의형제를 맺는 일은 교회 안에서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절 깨끗함으로” 경제면에서나 도의면에서 깨끗함으로 형님처럼 모시고 동생처럼 키우고 언니처럼 모시고 동생처럼 돌보아야지, 결의형제를 맺는 것은



교회의 헌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첫째로, 축복하며 키워야 합니다.

복을 빌면서 몸을 키워 주고 지식을 키워 주고 믿음을 키워 주는 것이 웃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식이 어른만 못하고, 돈벌이도 어른만 못하고, 육신의 힘도 어른만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만 있어. 조그만 것이 될 안다구”하며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둘째로, 지혜로 교육하면서 키워야 합니다.

깨끗한 종이장과 같은 어린이의 마음에 먹칠을 하면 안됩니다. 어른들이 한번 잘못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보면 깨끗한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먹칠하는 것이니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째로, 어린 생명을 예수님의 피에 젖도록 키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십자가의 피에 젖도록 키우고, 세상 죄악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어린 생명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을 공경하고 젊은이들끼리는 화목하고, 절대로 경쟁은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에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선후배 관계를 생각하여 선배는 선배의 책임, 후배는 후배의 책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김 원 남

(목사·예배위원장·제10교구 담당)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루어놓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생명)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가정 단위에 신앙생활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결혼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책망하셨고 징계 하셨습니다. (창6 : 1 - 4) 그리고 저주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 할때에도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그 가정에서의 생명인줄 알고 철두철미 하게 해나가야 할 것인줄 압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맞이 아니할려며는 모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가정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하는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중심해서 몇가지 좀더 구체적으로 왜 신앙생활을 해야하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또 신앙생활을 했을때 오는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저 합니다.

1. 왜가정은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느냐

1)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그 가정에 있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 가정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제일먼저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시고”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할수 있도록 하는 이성과 도덕성을 지닌 인생으로 지으셨다는 말인것입니다.

그리고 그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였고 또 “에덴동산 동편에 그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창3 : 24 -)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 함으로 영생하는 길을 주셨 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신앙 생활은 그 가정에있어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처음 이룩해놓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한가정 단위로 신앙생활을 할것을 명하셨고 또 그렇게 하는집에 축복하시고 대를이어 축복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명령) 대로 살게 하였고 또 그 가정에 삶에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것을 목적삼게 하셨습니다. 또 한 그 가정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영적인면에 은혜를 충족히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 가정은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살뿐 아니라 후대에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것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것을 명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아담 당시의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소서 한자리에서 8 대손이 앉아 하나님을 경외하는것을 배워 주도록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계난을 낳고 계난은 마할랄람을 마할랄람은 야렛을.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고 므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계보를 보면 아담이 930세로 죽게 되었을 때(창5:4) 7 대손 므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257세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멕은 30세가 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으니. 8 대 손들이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그 얼마나 가정에 신앙이 후대에 정확하게 이어졌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게 섭리 하셨습니다.

2. 가정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1)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수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웠든 아브라함 가정의 신앙은 가는곳마다 돌 단을 쌓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가정예배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① 하나님께 감사하고 ② 하나님께 찬송하고 ③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④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⑤ 하나님께 서원한것을 갚으며 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고 실천 하는 것이니. 이 가정예배는 곧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사람 주를 위한 희생적 헌신의 사람을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 온식구의 신앙인격이 형성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용납 하지 않는 자녀 감사생활을 잘하는 자녀, 힘써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녀를 키워 내는것입니다.

2)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 집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은 부모나 먼저 믿게된 분들이 자녀나 나중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것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흔히 많은 가정들이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느냐.

- ①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것입니다.
- ② 성경을 간접적으로 배우도록 격려. 인도 합니다.
- ③ 부모나 먼저 믿는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 생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린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 어머니나 아버지 되신분이 어린이에게 젖을 먹일때나, 잠을 재울때나 어린이와 놀이를 해줄때, 성경을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는 일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는 어린 것이 무엇을 알기에 그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식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진리를 배울수 있도록 직접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곳에 인도하고 격려 하는일은 꼭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먼저 믿게된 부모나 형제들의 신앙생활로 본을 보여 가르치는것은 더욱 중요 합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1000 시간 성경을 가르친일이, 부모들의 혹은 먼저 믿게된 형제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무력해지고 그 공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종 잘 믿는것 같은 가정에 자녀들이 불효하고 죄악을 일삼고 타락의 생활을 하게 되는것을 보는데 그 이유에 대부분이 먼저 믿게된 부모의 불신앙적인 행동과 죄악된 행실, 또 먼저 믿게된 형제들의 죄악된 생활에 기인 하는일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게된 부모나 형제들의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줄알고 가정에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일에 힘 다해야 하겠습니다. 꾸준한 가정에 신앙 생활은 수천만대의 믿음의 후예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어느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생활, 부모의 찬송감사 생활, 부모의 헌금, 헌물 생활 부모의 회생적 헌신 생활을 본받지 않는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먼저 믿게된 분들은 신앙 생활에 본이 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정의 신앙 생활에 철두철미 해야 하겠습니다.

3. 가정에 신앙생활을 잘한 까닭에 오는 결과는 무엇이나.

1) 가정의 신성을 보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선택의 사람들 이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원칙적인면에 신성이(거룩)보장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신성이 항상 약하고 무지하고 얼마든지 죄악에 넘어지기 쉬운 옛사람을 가지고있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힘써 가정신앙 생활을 재정비하여 가정의 신성을 유지 해야 합니다.

2) 가정에 있어서 사랑이 정립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가정은 그가정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랑의 순서가 정립되어 하나님 제 일로 먼저 사랑하고 다음에, 가정에 웃사람부터 공경 존경 하게되어 그 가정에는 공경, 존경 협력, 화합, 단결의 미를 나타내며 더욱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빛을 발 하게 됩니다.

3) 후대에 신앙의 계통을 물려줍니다.

가정 신앙생활을 잘하게될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후대들이 신앙을 대잇게 되는 것입니다. 3 대, 4 대, 5 대, 수10대, 수100대 이어 갈것 입니다.

4)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가정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에 축복하십니다. 장수의축복, 재물의축복, 성공의축복, 높임받는 축복 자손의복,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4. 결 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총현교회의 한 가정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우리교회 5대목표가 이룩되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부모를 받드는 그리스도인의 효



윤 용 규

(강도사·장년부 부지도·제5교구 담당)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1-4)

오월이 되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 이날 주일학교 어린이나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정문에 서서 어른들의 가슴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쓴 리본 달린 꽃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달아 드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된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달아 드린 카네이션이나 다른 예쁜 꽃들을 달고 만족스런 웃음을 띠고서 오는 것을 볼 때에 부모 자식간의 귀한 관계성과 가치의식을 갖게 한다.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으랴 마는 지금은 계시지 않으시니 이 하찮은 행사를 통하여서도 다 하지 못하였던 효(孝)를 더욱 생각나게 하며 이제는 나도 자녀들의 아버지요 이마에 주름살이 제법 늘었으나 동심

은 그 따뜻하였던 어머니의 품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다.

나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믿는다.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비로서 여성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한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을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자녀의 효(孝)도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진정한 효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좀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어머님께 효 하였던 조그마한 사연을 여기에 적어 보고자 한다.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시게 된 동기는 나의 간절한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후 신앙의 열심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겸비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으니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노련한 사공과도 같았다.

양반집이란 고정관습속에서 집안 내의 비난과 핍박은 대단하였지만 굴하지 않으시고 험한 풍랑과 거친 물결을 헤쳐 나가면서 많은 가정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자녀들에게 물려 주신 신앙유산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다.

그와 같이 사시는 어머님께서 1년여의 와병 중에 계셨는데 어느날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았다. 내가 화급히 시골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한지라 눈의 초점은 흐려졌으나 의외로 청각은 밝은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죽어 가시는 어머니에 대하여 가장 엄숙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가슴위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귀에다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어머님, 이제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영혼 부탁 기도 하세요. 이렇게 속삭일 때마다 어린 아기처럼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멘 아멘”을 연발하시며 머리를 끄덕이신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후 입이 크게 움직이면서 가냘픈 소리였으나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 주세요”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는 저 소망의 나라로 조용히 눈을 감으신다.

나는 이 슬픔 중에서도 가슴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안위하고 계심을 느꼈다. 내가 어렸을 때 밖에서 무슨 일 당하고 와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어 실컷 울고 나기만 해도 위로 받던 내가 지금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믿음의 아들이 속삭이는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위로 받고 계심을 보고 ‘나는 적어도 이 순간만은 어머님께 효도한 아들이었다’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지금은 엄숙한 죽음 앞에서 무슨 말로서 위로 할 수 있으랴. 좋은 음식으로 좋은 옷으로 더 잘 봉양하겠다는 말로서 위로 할 수 있었을까? 세계 여행을 시켜 드리고 재물을 드린다는 말로서 위로 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사실 믿음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무슨 말로 위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비록 못난 자식일지라도 예수 믿는 아들였기에 믿는 아들이 믿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삭일때 위로의 말씀이 되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라 예수 믿는 아들 되었음이 과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효를 한것이라, 그러므로 효자가 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고 감히 외람된 효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그러나 이것을 효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효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상고함이 옳은 줄 안다.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란 말이다. 때문에 효는 선행도 공로도 아니다. 무슨 남다른 큰 일이나 한것처럼 무슨 남 못하는 것을 한것처럼 아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효는 행하고 침묵하는 것이며 말이 없는 법. 그러므로 효자는 내가 효자라는 말을 할수 없다. 효는 나의 유익을 생각지 않으며 더 받고 저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행위 그것이 효다. 때문에 내가 효를 할 만한 부모나 아나나를 따지고 가려서 효하는 것은 효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 차원에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있다.

계명에는 사랑과 약속과 축복이 담겨 있다.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으니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효하라는 말씀이다.

또한 약속있는 첫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對人關係)의 기본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그 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이 효도란 말이다. 반대로 불효는 간음보다도 살인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서 효를 하면 큰 축복이 약속되고 불효하면 가장 큰 죄가 되는 계명이란 말이다.

세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부모가 늙고 연약하다고 해서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가지고는 효를 할 수 없다.

진정한 효는 마음 깊은 속에서 부터의 존경이 앞서야 한다. 설령 무식하더라도 정성껏 모시는 마음, 모르는 것이 많으나 존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공경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평생토록 그 많은 눈물과 희생과 뼈 아픈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인정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공경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사랑은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행한 마음만은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중심속에 있는 사랑은 높이 평가 하면서 존경해야 한다. 그 방법은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귀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

네째, 양육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

나 버리고 만다. 이것이 동물이라면 결국 사람의 인간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아는데 인간의 인간됨이 있고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은 낳아 주신 은혜는 혹 안다 할지라도 양육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식을 탄식하는 말씀인 줄로 안다. 사실 우리가 양육의 은혜를 모른다면 소나귀는 여물을 먹고 살며 우리는 고등한 식물을 먹고 산다는 것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일 것이다.

현대 윤리 도덕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했다는 점이다. 효에 대한 윤리 사상도 변화가고 있어서 오늘날 노인 문제는 청·소년문제 만큼이나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본다. 이 문제를 충효사상이나 조상의 뿌리를 찾는 교육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변하지 않는 도리로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우리는 성경말씀대로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사1 : 2-3) 양육이란 출산해서 보살피며 길러 주신 은혜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혹자는 모성애를 말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물 세계에도 모성애는 있다. 어미 닭이 술개를 당하지 못하지만 병아리를 채 가려 할 때는 죽음을 무릎쓰고 대든다 닭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 그러나 새끼가 조금 크면 쪼아버리고 병아리도 어미가 필요한 때는 따르지만 어느 정도 크면 떠

민고 있다. 진리는 언제나 불변하는 것이다.

진리는 불가변적(不可變的) 요소이기 때문에 발전도 진화도 개발도 없거니와 변할 수는 더욱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깊은 사랑을 알아야하고 귀를 귀우려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와 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신앙적 대화



구 명 신

(전도사·새신자부지도·제6교구)

한 하늘 밑에 한지붕 밑에서 한술에 지은 밥으로 한상에 둘러앉아 오손 도손 주고니 받거니 깨가 쏟아지게 살아가는것이 정상적인 가정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현악기에 “줄”이 끊어지듯이 에덴의 가정에 약속의줄 순종의 줄이 끊어지더니 그 아름다운 멜로디는 어디로 가고 깨지고 이즈러지고 바스러져 통곡하는 이상한 소리로 변했다. 그 에덴의 가정에 불순종의 “금”이 가더니 마침내 온 인류에게 죄악의 뿌리가 박혀 어느 가정이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온데 간데 없고 가늘게 혹은 굵게 “금”이 인간 가정이 없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금”이 갔고 다윗은 낮잠자다가 보지않아야 될 밧새바의 벌거벗은 몸을 보다가 평생 그 가슴에 멍이 들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들을 바로 가르

치지 아니함으로 그 가정은 완전히 백살이났다. 어찌 개인의가정 뿐이라. 온 이스라엘에게 “금”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먼 옛날것만 논하고 있으랴 오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자. 자식많은 선비집엔 교만의 “금”이가고 낫 놓고 기억자 모르는 시골 촌부의 가정에는 무지와 비열의 “금”이가고 고대광실 높은집엔 높은 “금”이가고 싸리울타리 오막살이엔 얇은 “금”이가고 고급승용차에 비스듬히 누워 현대 입에물고 눈을 자국이 내려감은 신사에게도 남 모르는 깊은금이 갔으니 어느 누구의 가정에 이 “금”이 아니겠으랴.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하는 까껴중이 내 아들 살려달라고 애절복걸 애타게부르짖는 엄마에게 4 대째 “상여” 보지못한집 4 가정에서 공양미를 가져오면 네아들 살려주리라 “관세음보살”했다. 눈말이 있으니 이는 불가능이란 말이다. 어느집이고 “금”안가고 명 안들고 환

숨없는 집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말을 잠깐 멈추고, 어느딸이 엄마에게 쓴 편지 일부 그대로를 소개한다.

“낮에 성경을 읽다보면 엄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보고있는 내모습을 엄마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런데 매일 이라고 장담을 못하니 아직도 멀었지요. 좁은 소견이지만 받을 만한것 하나도 없는 나에게 축복이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한 것이란 느낌을 늘 간직하고 있지요 지금도 끈기없는 아들과와 고집센 딸애의 모습을 볼때면 마치 내모습을 보는듯해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난 후에 더욱 마음이 아프지요. 며칠전 딸애가 오빠없는 동안 책상을 뒤져 갖기도 있지만 자기것은 아까워서 오빠 물감을 허락없이 꺼내 쓰기에 별거아닌거 같지만 앞으로 계속 남의물건에 손을댈 가능성 때문에 막대기를 들어 크게 아프게 때려주면서 옛날 오래전 엄마가 나 고등학교때 사람들이 없는 우리집 뒤뜰에서 혼낸후 손을잡고 울며 서로 기도하던 기억을 되새기며 나도 역시 딸애에게 같은 방법으로 했지요.

아이들은 올바르게 깨끗하게 잘 교육한다는게 얼마나 힘든건지……아이들이 커갈수록 더욱 (그렇군요) 어떻게하면 기를 죽이지않고 잔소리하지않고 또한 무관심 하지않고 잘 키울수 있을까. 물론 엄마는 기도로 말씀으로 키우라 하겠지요.

85년1월1일 김창인목사님의 설교중에 자기는 국민학교때 성경 14번 읽은것은 어머니의 힘이였다고 말씀한것이 늘 내마음에 책임으로 느끼기에 두 아이들을 같이 낮시간에 성경을 무슨말인지 모르지만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한다는것 쉬운일이 아니군요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이곳이 연고지가 아니기에 낮에 무척 심심하겠다고 하지만 난 혼자 이것저것 바쁘군요.

위에 편지의 내용을 살펴 보면서 주어진 제목인 교회와 가정이란, 꼭꼭어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가정이다. 라는 것보다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생각 할수가 있을 것이다. 좀더 크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정으로 하늘나라 교회로 확대할수도 있을것이

다.

가정의 구성원은 반드시 혈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가정이나 큰가정이나(교회) 좀더큰 가정(천국)에서 공통적으로 빠져서는 안될 주인공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되시는 아버지(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편지필자의 가슴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기때문에 자기가 자라나던 그옛날 천정에서 부끄러웠던 과거를 창피한것도 모르고 되새기는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인공인 하나님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것이요 보이지아니하는 줄”로 이어진것이다. 억만금의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갈정도로 진정 옛것을 탐냈으나) 이딸은 드라빔이 아닌 생명의 줄인 하나님을 모시고 간 것이 분명하지않은가.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누구를 높이며 어떠한것을 자녀에게 선물로 줄까요. 고전4 장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 되라”라고 바울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자신있는 딸입니까.

전도하기 가장힘든것은 가까운 친구나 자기 집인식구들에게 하는것이다 왜? 내생활을 너무 잘알고 있기때문에 너나 잘믿어라 (네 생활이나 고쳐라) 하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있게 사도바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되여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끊어진 “줄”을 이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술주정뱅이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면 무슨소리를 흉내 내겠으며 부부싸움잘하는집 아이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자 그리고 신자의 가정의 자녀들의 노는모습을 비교해 보라 아이들을 타하기전에 내모습을 발견해야 할것이고 위에서 부은물이 아래로 내려 가듯이 조상이 빌어준 축복을 누가 받겠느냐는 말이다 성경책은 장식품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하며 그속에 담겨진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하며 사랑에는 말만 아니라 실천자가 될때에 생명의 줄은 밑으로 밑으로 아래로 아래로 영원히 영원히 후손에게 이어질 것이니 이것이 신앙인의 가정생활이요 확대하면 교회생활이 되는것이다.

성도의 가정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하소서



송 환 창

(장로·당회부서기·제7교구4지역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6:1-4)

우리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아버지! 날마다 배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죄악이 관영하고 재난과 질고가 가득찬 이 세상가운데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저희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성도의 가정이 어지러운 이 사회에 우뚝 솟아 노아의 방주 구실을 하기 원하오며 하나님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며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는 은총을 주시옵기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주시고, 태의 열매를 그의 상급으로 주셨사오니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부모의 경계를 받는 자녀는 슬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첫계명을 지키어 그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된 사람들은 내실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고 그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근면한 자로 재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된 사람들은 범사를 남편에게 복종하여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유덕한 여자로 존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사람들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되, 먼저 자기집에서 효를 행하기를 배우게 하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가정이 다모태의 가정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신앙을 지키며,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을 배움으로, 다윗의 가정같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고 말씀하셨아오니, 성도의 가정마다 온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시온에서 복을 받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축복을 보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 흐르는 가정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가족사진은 표지사진입니다.

입이 무거운 안수집사였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 하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고 피흘려 구축의 은총을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무슨 선전이 될 수가 있고 남에게 나타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렇게 겸손히 답변하는 본교회 김형선 안수집사(43세·강남구 신사동554-19) 댁을 방문한 날은 지난 4월 중순경이었다.

부모님을 비롯한 온 가족이 다 참석한 이날 담방에서 김형선집사는 말끝마다 “부끄럽다. 할말이 없다. 죄송스럽다.”였다.

김집사는 지금부터 10여년전 믿지않는 세상사람들의 비인간적 삶의생활에 환멸을 느꼈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윤리와 도덕을 외면하는 세상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마음이 괴로왔다고 했다.

이때만 해도 종교를 갖지않았던 김집사는 마음속의

3녀(우성(5세), 장녀 희정12세 신구국교5년) 차녀 남희(11세·신구국교4년) 삼녀 현주(9세·신구국교2년)의 다복한 가정으로 형성시켜 주셨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김서권씨(71세)와 어머니 김고분명애집사(77세) 등과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하루 일과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아버님 김서권씨가 중풍으로 몇년간 기거동작이 불편한데, 며느리인 한영자집사가 불평한마디 없이 뒷바라지를 해 나라에서 주는 효부상을 탔고, 믿지않는 친정집식구까지도 전도하여 충현교회에 등록시키는 열심도 보였다.

고향이 경기도 양주출생인 김형선집사는 자녀교육과 신앙지도는 자기 자신이 꼭 본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미 주님께 붙잡힌바된 저로써는 앞으로 삶의 추구방법을 하나님께 영광되는일에만 최선을 다할것이며, 축복으로 주신 재물도 주님영광위해 쓸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굳이 말을하기를 사양하고 있지만, 충현교회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에 교회출석하게 되고 부모공경·자녀 교육을 부인과 함께 신앙적으로”

공허와 외로움에 시달렸고, 친구들의 세상적 향락유흥을 뿌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세전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에 의해서 누구의 전도권유도 받지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교회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처음 교회 들어서자마자, 그의 마음은 평안하기 시작했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인간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는데 확신을 가졌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다.

72년 충현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와 각종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여 성도의 기초적인 교리를 이수하고 74년 4월 학습을 받고, 75년엔 백성통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불안했던 그의 마음에 평안이 오니 좋은 배필자인 한영자집사(42세)를 부인으로 맞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1남

제정위원의 귀뜸에 의하면 충현교회에서는 십일조헌금을 최고의 액수로 바치고 있다고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일 애송하고 있다는 김집사는 가혼으로 「사랑을 베풀자」로 정하고 자기 가정뿐 아니라 이웃가정,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사랑을 베풀는데 힘쓰고 있으며, 가정예배를 드릴때마다 찬송 43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안에 있는 궁핍 어찌 의심하리요…」의 찬송을 부를때 힘이솟고, 믿음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신앙경력이 아직 어리다고 겸양을 내세우는 김집사는 충현교회가 초신자들을 꼭잡아주는 사랑의 실천운동이 좀더 넓게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진의하면서 충현교회 건축위원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재정위원, 남전도회 부서기직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

기자가 탐방을 끝내고 떠날때 “저의집 내용이 소개되어 교만해질까 심히 두렵다”는 김집사의 얼굴엔 꾸밈이 없는 성도의 얼굴로 환하게 다가왔다.

탐방대담 / 손경수집사

우리의 기도

공동 기도 제목

1.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며,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2. 선교교회의 안정과 부흥발전 및 선교지역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3. 현지인의 복음화와 개척교회의 설립 및 현지인 사역자의 훈련과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서부 뉴기니아(이리안자야) 선교 개척지에 보낼 선교사 2명의 파송과 이들을 후원할 선교비 지원을 긴급히 청원.
- 대대적인 이리안자야 선교사업을 위한 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리안자야 주 정부와의 협력사업이 순탄하게 이루어 지도록 지원요청.
- 42개 오지 개척교회중 아직 후원자가 없는 7개교회의 후원자 물색을 청원.
- 한인연합교회, 유치원, 장굴순회전도, 고아원 전도 사업, 현지어 문서선교(성경 및 전도지)를 통한 교포 및 원주민 복음화를 위해.

서독(육호기 선교사)

- 비스바덴, 뷔츠브룩, 하나우, 새 교회의 새로 보강된 제직과 성도들을 중심한 교회의 안정과 힘찬 부흥 및 교포 복음화를 위해 기도부탁.
- 예배에 동참하는 현지인들의 신앙성장과 독일 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위해 기도부탁.
- 바쁜 가운데 더욱 바빠진 초대 유럽 노회장으로서의 활동과 교포 복음화 및 유럽복음화를 위한 힘찬 전진을 위해 기도부탁.

애굽(이준교 선교사)

- 카이로 시내 애굽인 교회에 신앙월력을 전달하며 선교협력을 다짐.
- 애굽 복음 주의 교단장을 만나 농촌교회 지원금을 전달하고 선교사업을 협의.
- 새로 개척된 타아운교회 및 탈비아 교회를 방문하고 대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 새로 조직된 남미노회 부회장에 피선됨.
- 파라과이 원주민 성서공회목사께서 내방하여 문서 선교에 관해 협의.
- 충현 성도 여러분, 특히 선교회원 여러분의 기도로 선교사님의 성대가 부었던것 거의 다 나은것 감사하는 문안의 인사.
- 교회의 증축공사가 준비 단계에 있는데 기도의 계속 지원을 부탁.
- 장남 성수군의 장학금 지급에 감사하는 인사의 말씀.
- 교회현황을 알리는 '85년도 교회조직 및 주소록을 보내주심.
- 11개 개척교회 지원 및 1개 원주민교회 지교회 후원중

칠레(유재일 선교사)

- 지난 1월31일 창립된 산티아고 중앙 목요 교양 특강을 시작함.
- 새로 창립된 본 총회 남미노회의 부서기로 선출됨
- 현지인 사역자 호세바스켓스, 현지인 신학생 양성 및 고아원 후원사업 계속.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 브랏셀 한인교회를 “브랏셀 한인 선교 교회”로 개칭하였으며 선원 선교 교회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림.
- 브랏셀에 온 아프리카 피난민 8명을 찾아가 기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금을 전달, 계속 오웬 선교회의 협조를 받아 성경공부와 전도 활동을 시작.
- 브랏셀 한인 선교 교회의 현재 제직은 장년 71명, 유·초등부 42명, 선원 선교 교회는 장년 65명, 유·초등부 31명임.
- 씨니벨리호 기관장으로 배안에서는 물론 배가 머무르는 곳곳마다 여러나라 말로 된 전도지를 이용하여 선교하고 있는 김춘식 형제를 만나 복음의 동역자로서 교제를 나누며 선상 예배 및 성찬식 인도.

이스라엘 (김주경선교사)

- 예루살렘 한인교회 목회자 히브리 대학 대학원 학업중.
- 성지 연구소 설립을 위해 다방면 인사들과 접촉.
- 현지 아랍인 선교 및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협력증진.

인도 (엘리아겔간선교사)

- 본 교회 자매교회로 인도 선교를 맡아 지원하고 있는 빌립보교회와 연락이 안되어 본부로 문안과 함께 편지소식과 전달 부탁하는 편지를 동봉해옴.
- 성경번역사업, 현지인 회교도, 불교도 전도 사업, 진료사업, 국민학교, 시험농장 운영 등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

일본 (유병세선교사)

- 현지 보건소 소장직 정년을 맞이하였으나 선교와 봉사를 위해 1년간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모교회에 간절한 기도의 지원을 요청.
- 특별히 건강과 복음사역을 위한 권능 주시고 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
- 히로오교회, 호로이즈미교회에서의 설교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선교사업, 보건소 진료소 환자 전도, 이윤호 권사님의 부인 성경반을 통한 선교도 계속, 귀한 결실 거두며 진행중.

리성충현교회 (정상우목사)

- 부활주일에 성례식을 거행, 학습 4, 새례 4, 입교 4, 유세 6, 개종 1, 계 19명, 수찬자는 230명이었음.
- 4월21일 주일에 안수집사(김성주, 신동수) 안수식을 거행함.
- 애굽 선교지를 위해 금년부터 매월 1,000불씩 지원키로 결정한 후 선교비를 송금함.

털사충현교회 (강성진목사)

- 3월16일 박종만 목사님 뉴욕 부임차 털사충현교회에 오셔서 17일 주일 대예배 설교 하시고, 18일 시카고 워싱턴 경유 뉴욕 출발.
- 본 교회 소식 문안과 송부 부탁 및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의 지원을 요청.

뉴욕충현교회 (박종만목사)

- 3월31일 당회를 조직. 당회장: 박종만 목사 당회서기: 신계택장로, 당회원: 강병희장로, 제직회 남14, 여15, 계29명.
- 뉴욕 및 뉴저지 2개교구, 3개구역, 32세대로 결정.
- 4월7일 부활주일 세례식을 거행.
- 교회의 순조로운 부흥과 발전.
3월24일주일 장년65명, 학생17명, 계 82명
3월31일주일 장년61명, 학생16명, 계 77명
4월7일주일 장년81명, 학생26명, 계107명 모임.
- 또한 4월14일 주일부터 매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함.
- 현재 선교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5개 개척교회에 매월 650불을 지원하고 있음.

홍콩충현교회 (오치용목사)

- 3월3일 유니온 교회와 성찬식을 겸한 연합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
- 3월15일 홍콩한인교회(고 홍종만 목사 시무 교회)에서 철야기도회 설교를 담당하심.
- 교회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5월4일 선교관 마련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개최 하였음.

본부소식

- 3월23일 장정일 수석 부목사 홍콩 충현교회 선교 부흥회를 은혜중 마치고 대한 항공편으로 귀국. 본부 임원과 현지 소식 간담이 시간을 가짐.
- 3월24일 본 선교회 지도 유국남 목사 및 재정국장 신현상장로께서 인도네시아 선교부를 지원하고 있는 부산 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 시무)를 방문하여 여 전도회 헌신예배 설교 인도 및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고, 장전교회(김인섭 목사 시무)에서는 찬양예배 기도 및 설교를 담당, 예배후 선교 협력 간담회를 가졌음.
- 3월20일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개척전도를 하고 있는 고영수 목사께서 본부를 방문하고, 선교 소식과 자료를 제공, 선교 협력에 관해 협의.
- 3월26일 박종만 목사 자당 김원수 전도사께서 본 교회 충현 기도원으로 이사. 당회장님께서 직접 심방해 주시고, 본부 교역자 및 임원들도 심방함.
- 3월31일 선교회 전체 월례회를 가짐.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먼저 바람부는날 하경아 수고했다. 잊지 않고 성가연습 다녀 오는 우리 하경이 하나님께 보시고 참 기뻐하실까 야 물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겠지.....

엄마도 다알아, 하경이 학교갔다면 쫓기듯이 T.V 만화도 다제쳐놓고 늦게까지 다녀오는 그 수고 엄마가 왜 모르겠니? 이렇게 하는것은 “하경이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어요”하고 하나님께 약속 한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이루는것이 중요한것이란단. 또 오고가는 시간이 몇번씩 차를 바꿔타더라도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수있는것 아니겠니?

하경아!! 하얀가운을 입고 찬양을 드리는 너희들 모습은 정말 천사와 같애 성가대에서 엄마는 하경이만 보이지만 그런 하경이가 엄마는 참 사랑스러워. 꼭 성가대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것은 아니겠지 학교 숙제물을 정성스럽게 잘 한다거나 예쁘게 말을 하는것이나, 또 홍당무도 가려내지않고 잘 먹고, 기도시간에 어떤친구 눈떴나 살피지도않고 예쁘게 기도하는모습...등 이모든

“예쁘게 기도하는 하경이..., 어깨를 펴라”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단.

하경아!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경이를 누나와 함께 제일 사랑하는줄을 잘알지. 엄마는 하경이를 하나님앞에서 바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단다. 책임이란 것은 맡은일을 잘하는 거란단.

하나님이 하경이를 엄마에게 보내주실때 하경이 바르게 키워라 하셨는데 이다음 하나님앞에 서서 “하경이 이런 저런 잘못했을때 왜 바로 일러주지않았니” 하시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지? 할말이 없어진단다. 하경이도 잘 알지. 그 피노키오 얘기말이야 못된짓하는 애들과 함께 어울린 피노키오! 아무도 일러주지않아 점점 나빠져 꼬리가나고 귀가 너무 커져 결국 당나귀가 되어 끌려간 얘기. 그래서서 엄마가 타일러주는것. 당나귀가 안되게 하려고 엄마가 우리 야단치는거라고 하경이가 얘기했던것 기억나니 바로 그거야! 엄마가 미워서 하경이 나 무라는것은아니다. 엄마는 하경이가 참 좋아 하경이가 원하는것 엄마가 힘이없어 때론 다 못 이루어 주더라도 하나님이 사정 다 알아주시니 염려없단다. 그러니 하경이도 어깨를 쫓 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경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나?

강 순 희

(집사·유년부 김혜경 어머니)

“아빠는 혜경이를 무척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생각지도 않던 아빠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반가와 할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랄 혜경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쓰는거야.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아빠엄마 손잡고 입학한 날이 얼마안된것 같은데 벌써 일년이 지나 이학년이 되었구나. 며칠전 아빠가 약국에 늦게나갈때 창가에서 본 혜경이의 학교가는 모습이 생각난다. 작으마한 책가방을 메고 통근버스에 올라 학교가는 너의 모습을 보고 아빠와 엄마는 그동안 건강하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혜경이를 꼭 지켜주세요” 기도 드렸단다. 그러고보니 너하고 특별히 이야기하거나 따로가진 시간이 너무 없었던것 같구나. 언젠가 네가 이런말 한적있지 “아빠는 참 이상해” “왜” “아빠는 혜경이를 사랑하지 않는가봐” “그렇리가있나”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같이 산에도 놀러가고 수영도 간는데 아빠는 그렇지 않은것 같애요” 무슨 말로 사과해야할까. 너에게 정다운 아빠가 되지 못해 부끄럽기만하구나. 그렇지만 아빠는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하면 너와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이야기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 있을까하고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하나님을 믿지않는 친구들은 주일

아빠가 딸에게

날 마음대로 놀러가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님의 날이므로 우리 가정은 교회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지키는 기쁜 날인것을 혜경이도 알고 있겠지? 그래서 매달 마지막 날을 “가정의 날”로 정하여 그날은 온 식구가 가고싶은 장소에 가서 재미있게 보내면 어떻겠니? 그렇게하면 우리 가정은 사랑이 더욱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꺼야.

“어때 혜경이도 신나는 일이지” 아빠도 그렇게 정하고나니 무척 기쁘고 그날이 기다려지는구나. 혜경아 학교생활에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러나 그런일은 누구나 자라면서 거치는 것이란다. 공부도 잘하고 동생 창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잘 돌봐준다는 말을 듣고 아빠는 무척 기뻐단다. 혜경이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한다.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구나.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것 잊지 않았겠지.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혜경이를 생각하면서 안녕. 혜경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김 상 덕 (유치부 혜경이 아버지)



딸이 아버지에게

가정의 달 서간문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빠 닮게 해주세요.”



에쁘게 찍어주세요.

아빠./

더욱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저는 매일 기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아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빠를 닮기 위해 저는 노력하겠어요.

신문사에서 어렵고 고된 일을 맡아하시며 새벽부터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수고를 저희 딸들은 잊지않겠어요.

특히 지난 4월22일엔 새벽회의에 참석하러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강변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지만 하나님 은혜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을 주님께

아빠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요

내가, 그리고 동생들이 아플때면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시고, 머리를 짚어주시기도 하셔요.

또 생일이 되면 선물도 한아름 사주시고 사진도

감사기도 드렸어요.

교통사고로 2주간 회사도 못나가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늘 성경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가지 책들을 누워서 읽고 계시는 아빠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와 동생들은 가정예배시간에 아빠의 몸건강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빠./

항상 몸건강 하셔야 해요.

이번 어버이주일에는 아빠 옷저고리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아빠의 사랑에 보답하겠어요.

아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저에게 좋은 아빠와 엄마를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저는 항상 부모님의 고마움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꼭 보답드리는 날이 올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어요.

손 에스더 (초등부 · 손경수집사 큰딸)

“엄마에게 업혀 교회갈때가 엇그제 같은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5월이 돌아옵니다.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척 즐거웠던 일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에게 업혀 교회에 다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젠 혼자서 버스를 갈아타면서도 교회에 잘 다니는 소년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5월이었지요. 저는 이상하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학교에 가면 날마다 조퇴를 하고 와야 되고, 5월 어느날 주일 예배에는 아파서 결석까지 했지요.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한달 동안 시름시름 아프다고만 하니까 어떤 병인지 몰라서 애태우신 어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많은 폐를 끼쳤읍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간호해 주신 것을 저는 잊을 수 없읍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저는 결심한 것이 많았읍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교회생활과 학교생활을 훌륭히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일을 잘 하는 것 같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때 결심하고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있읍니다.

교회에 잘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읍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도 철모르고 어리광만 피우면서 실망을, 드리는 제가 되었읍니다.

어머니와의 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읍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의 같이 저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의 욕심을 따라 제가 하고픈 대로 했읍니다. 공부하는 때 게으르고 친구들과 나가 놀기를 더 좋아했읍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는 반장이고 교회에서도 청찬을 좀 듣는다는 제가 어머니를 기쁘시게 못해 드리다니 말이 안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요. 다음 편지엔 부끄럽지 않은 편지를 쓰게 해 주셔요.

조요한 (소년부 · 조선근장로 아들)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



김 영 삼

(장로 · 장학위원)

성경 롬 5:1-4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10월 24일 51개국을 원 가맹국으로 하여 발족한 유엔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구성된 인류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국제기구의 하나입니다.

이 유엔총회는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는 인간 의지의 집합체로 발족했던 것입니다.

유엔총회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종전 직후에 걸쳐 주로 연합국의 주도하에 설립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국제연맹이 획기적인 국제평화기구화 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을 예방하지 못한 모순성을 통감하면서 전쟁이 치열한 때부터 전후의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준비가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전세가 연합군측이 유리해지기 시작하던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미·소·영 3개국의 외상회의가 개최되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세계적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중국을 합해서 4개국이 공동선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8월에서 10월사이 미국 워싱턴 교외에 있는 덤버어튼 오크스에서 4개국이 모여 공동성명의 주지를 구체화 하고 “덤버어튼 오크스제안”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뒤에 채택된 유엔헌장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1945년 2월에는 크레미아 반도에 있는 알타에서 미·영·소 3개국이 모여 안전보장이사

회의의 표결방식 즉 강대국 거부권 행사와 신탁통치 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1945년 4월 25일부터 미·소·영·중 등 4개국 초청으로 연합국 전체회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는데 전후의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서 덤버어튼 오크스 제안을 약간 수정하여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유엔기구의 기초를 이루는 유엔 헌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여년동안 이 유엔총회는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온갖 국제적 분규의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지만 월남전쟁을 포함한 수에즈동란, 항가리폭동, 쿠바위기, 도미니카분쟁 체코의 소련침공, 중동전쟁에 토의를 하거나 비난 성명을 내는것 이외에 더 이상 아무일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은 인류가 평화를 갈구한다는 표상의 깃발인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인류는 이 지구상에 생존을 시작하면서 부터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싸움이 시작되었고 상대적으로 이 싸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열망이 가슴밀바닥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계 제2차대전이후에 공산주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온 세계는 두가지로 대립되게 되었고 전쟁은 계속하고 있어 온 세계 인류는 불안과 공포의 세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인류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 어떤 지방이나 국가의 국민이라도 역시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확적으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생존을 지켜온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 평화에 대

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때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샬롬”의 의미가 곧 평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샬롬”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 대량학살을 감행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손자의 귀에 대고 할머니가 마지막 한말은 “샬롬”이었고, 피골이 상접한 남편을 다시 만났을때도 “샬롬”이라고 했던것입니다.

6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럽에 유학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텔아비브 공항을 향해 떠나갈 때 그들의 젊은 연인이 귀속에 속삭인 말도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찌기 그들의 나라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했던것도 영원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의 노래속에서 선포되었던 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한국백성에게도 이평화가 너무나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모양 저모양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고 희생을 당한 사람이 얼마며 30여년의 긴 세월속에 남북이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북한공산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숨막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샬롬!

이 백성은 이 샬롬을 찾아야합니다.

이 숨막히는 동족상잔의 대치에서 참다운 평화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어디에서 구해야 합니까? 오늘읽은 성경말씀 로마서 5장1절에 “우리주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 즉,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역경에서도 샬롬을 말할수 있다는것은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암송하고있는 시편23편에

서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초장에 눕게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샬롬 즉, 평화의 소유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누리는 평화만이 참 화평인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온갖 정치적 압력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을 때 언제나 제 곁에 오셔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와 마음속에 참평화를 누릴수 있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느 음침한 골짜기를 양떼를 몰고 지나가던 목동이 읊은 그 한구절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에서 부터 인류가 소망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갈망한다고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 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의가 있어야 화평이 오겠고 평안과 안전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10절에 “공효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마추었으며”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와 화평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며 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온다는 말인줄 압니다.

오직 공의만이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평화문제를 생각할 때 안전과

질서도 역시 공의의 법칙에 관계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국내의 평화도 입법·사법·행정·모든 기관이 공의와 정직에 의해서 실행될 때에만 진정 불평없는 평화와 안정이 올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만민 평등의 원칙이 잘 준수될 때만 우리국내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법부의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도 온전히 공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와같은 재판이나 공판이 공의의 법칙에 어긋나면 국가의 기강은 즉시 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는 한가지 원리는 정직과 공의를 시행하는 거기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범위를 좁혀서 교회의 화평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공의를 시행할 때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의가 있어야 화평이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권이나 정당에서 내거는 구호만이 아니라 이땅에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겨레에 한결같은 염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이땅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정착된 이 화평이 하나·둘 모여서 의의 화평을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평화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자고”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참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평화란 무엇입니까?’

제 소박한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이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하는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틀 때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교육자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

들이 청년·학생·기업인·산업인들이 농민들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스리는 사람들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앞장서야함은 말할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노력을 해야하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순교자적인 사명을 다했는가 반문한다면 그 대답은 역시 부정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을 때 이 민족의 분단도 열리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땅의 1천만명의 기독교인의 가슴마다 평화를 이루고 그 집약된 힘이 활성화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게 될 것입니다.

동서의 군대들이 가련한 팔레스타인 산야를 짓밟고 휩쓸며 오고가는 동안 히브리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정신적 평화를 얻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26장3 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는 침략군 앞에서 떠는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저항주의를 쓰라는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수 없이 많이 넘긴 민족입니다. 멀리는 북방 호족들로 부터와 왜구의 침략 가까이는 일제36년과 공산군의 침략아래서 자유당, 공화당 독재하에서 그밖에 여러가지 정치형태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가련한 상태에서 평화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속에 불안을 씻고 화평을 다스릴수있는 축복을 주셨고 까닭에 이렇게 살아남아 최후 승리의 순간을 보여주시

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에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가 계속 열기를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갈구하는 참평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9 장 6 절에 예언한 메시야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의 노래에서 선포된 것도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 장에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능력으로 천군천사들 무수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가련한 모습으로 오시고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화려한 왕궁이나 시설 좋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말구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삶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두벌의 옷이 없고 머리 둘 한칸의 집도 없이 유리하는 모습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털깎는자들 앞에선 양과같이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목말라하시던 그 처참한 모습은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수모요, 고통이요, 실의요, 좌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생각 하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이 나라를 보시면 주께서 마찬가지로 눈물지우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엄청난 실의와 좌절과 고통속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게 절망이 왔을때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삶을 마친 한 가련한 자가 어떻게 로마제국을 그의 발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칼이나 창 한자루 없이 대 제국을 굴복시킨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좌절과 실의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와 싸워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고 만다면 인간은 거기에서 모든것이 끝나고 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선포는 곧 세상을 이기는 열쇠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든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지는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화평을 얻을 수 있을때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를 얻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가난한 자리에서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환난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바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일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삼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헤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생사고락을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맹세한 수제자 베드로도 감람나무 그늘에 숨어 스승이 잡혀가는 모습을 먼발치로 바라보고 있었었습니다. 스스로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아픔은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며 합창하던 예루살렘의 시민들도 그 입에서 침이 마르기전에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뿔뿔이 달아나고 이적과 기사를 구하며 쫓아다니던 많은무리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되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고 데모를 하는 상황에 처한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님께서 당

하신것입니다.

그리고 삼일동안 무덤에 머무시고 완전한 패자가 되신 후에 승리의 부활을 하신것이 아닙니까?

평화는 단시일에 얻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 비로서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기 어려운 환난중에서라도 인내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삶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정직한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 권모술수가 없는 나라.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없이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힘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위에 군림해서 호령을 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만이 최상의 것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없고 모든 사람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는 어리석음이 없는 민의가 곧 삶의 바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 소망을 실현하기위한 우리들의 결의가 가슴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일찌기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환상이 없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가르쳤읍니다. 즉,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방식을 현실에 맞추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현실극복에만 급급한다면 그 삶은 언제나 그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고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 내일을 내다보고 우리는 조금하지 말고 그 환상을 현실로 하는 고통을 인내로써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있을 것이고 그화평이 현실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명심 때문에 자기당대에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인간의 한 생이란 지극히 짧고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조금히 서둔다고 해서 역사자체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 까지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간파해서 안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평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에 이루어진 평화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가 소망하는 평화와 직결해야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간절한 소망인 평화 즉, 살림을 생활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들의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을 축출해야 합니다. 이 미움이 곧 평화의 절대적인 적이란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미움을 겨레의 마음속에서 축출할 수 있는것은 곧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겨레의 심장에 심는 일입니다. 한편 누구나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길로 간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20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한사람의 미움은 바다가 물결을 움직여서 바다속에 있는 진흙과 검풀이 솟구쳐 올라와서 뱅뱅도는 그런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단체도 화평을 얻으려고 할 것이면 의의 길로 돌아오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국가에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주인의식



최 석 주

(장로·기획조정실장·재정위원장)

주 : 주인의식은 주님의 청지기로써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충현교회가 역삼동으로 이사온후 넓은 공간으로 인해, 예배및 각종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활기있게 교회운영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게 됨을 모두들 감사하고 있다.

물론 본당건축이 완공되지 못하여 그 안타까운 심정이야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믿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 본당 공사도 완공될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모든 교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건축헌금을 하고, 경상비 운영을 위해 일반헌금을 하는 그 자세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할 정도이다.

충현교회 교인 분포와 성향을 보면, 재벌인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의 최고 아니 동양의 최고인 충현교회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물론 당회장 목사님의 특별하신 기도와 헌신적인 진두지휘로 건축공사가 실행되고 있고 당회원들과 온 제직들이 열심내어 협조한 보람이 있어 오늘 이 정도까지라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지상교회의 예배처소는 관리책임이 모두 성도에게 똑같이 부여되었는데 남의집 드나들듯 하는 성도가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지어진 충현교회당이 관리 부주의로 훼손되어도 누구하나 간섭하

지 않고 어린주일 학생들이 작난삼아 부숴뜨려도 말리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완공된 교육관 각 교실에 가면 문고리 망가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을 여닫는 일을 심하게 다뤄 베니다로 만든 문짝이 충격에 의해 구멍이 나도 내집처럼 타이르는 성도가 없다는데, 마음이 아프다.

만약 자기집이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부로 다루는 행위를 보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을까?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모든 비품(기계류 포함), 소모품까지도 모두 성도의 헌금으로 구매되었는데, 함부로 사용해서 고장나게 하고,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풍조들이 있음을 목격할 때,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이 결여되었음을 자성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당회에서 불요 불급한 재정 지출을 중지기로 했고, 심지어는 교구 운행버스 까지도 전면 폐지한 이 마당에 우리 성도들은 방관자세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사랑에 앞장서야 할 것 같다.

교회내의 각 부서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비품 사무기기등도 내것처럼 생각해서 깨끗하게 정중히 다루고, 못을 하나 사더라도 튼튼하면서 싸게 구입 하는 지혜를 쏟아, 어려운 충현교회 살림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아야 하겠다.

실천하지 않고 말만가지고 하는 모든사업, 행사, 체면치레 행위는 모두 근절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알뜰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보자.

교회성장과 교회교육



조 영 진

(목사 · 교육위원장 · 제3교구담당)

(2) 학생

열심히 배우고저하는 신자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교인들은 누구든지 배워야만하고 또 가르쳐야만한다. 태아에서 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까지 누구든지 말씀을 배워야만한다. 그래서 우리교회에서도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영아부 아니 새 가정부 (신혼가정)에서부터 소망부 (70세이상되신 분들)까지 16부 주일학교를 두어 문을 항상 오픈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부족하여 그렇지 학생들은 얼마든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평생을 배워야한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저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고 하지 않았던가? 호세아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자식이 없으므로(성경지식, 하나님을 아는지식) 망하는 도다!” (호4 : 6)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6 : 3) 이다.

(3) 학교

교회교육은 물론 주로 교회당건물 혹은 교회 부속 교육관시설을 말한다. 교육할 수 있는 환

경과 공간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훌륭하고 학생들이 많다고해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시설이 미비하면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가 없을 뿐더러 교회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교육시설에 힘을 기우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뿐만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체 교회적인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가 뒤 따라야만 한다. 다른데 절약을해도 교육하는 일에는 절약 긴축해서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교육에 소홀히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미래가 없다. 그리고 성장하지도 부흥하지도 아니한다. 교육에 힘을 쓰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이다. 교회는 바로 교육이요, 또한 교육은 교회성장이기 때문이다.

Ⅲ. 교회 교육과 그 방법

교회교육의 방법론은 금년도 교육위원회의 운영방침에서 이미 제시한바와 같이 “성숙한 양으로(그리스도인) 육성 하자!” 라는 표어를 정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성경말씀을 골로새 1 : 28-29 로 택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교육의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본다.

- (1)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곳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는데 있다. 다른사람 다른 학문 다른지식을 가르치는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예수 다른영 다른복음”(고후11:4)이 가르쳐졌을때에 바울 사도는 여간 걱정하지 아니한것을 볼수가 있다. 교회교육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그리스도)되심을 가르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돌고 있다. 우리나라교회에도 문예수(문선명 통일교) 박예수(박태선 전도관) 왕국예수(여호와의 증인) 물론예수(물론교회)등이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고 다른 영 곧 귀신 영 사단 영 더러운 영 거짓 영의 역사와 다른 복음들이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판단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육이 없고서야 미래의 교회를 기대할수가 없다.

- (2) 각 사람들을 잘 권하는 것이다.

잘 권한다는 말은 위로하며 격려하고 충고하며 상담하여 교육하는것을 뜻한다. 가르침을 받는자들을 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심방하기도 하며 인격적인 접촉으로 인한 속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와 상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르쳐야만 한다.

강의식 교육과 주입식 교육은 이미 지나간 세대의 교육적인 방법이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각 사람을 잘 권하며 교육 하는 것이다.

교사는 이러한 점에서 보혜사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보혜사는 위로자와 상담자와

대언자 혹은 변호자 그리고 또한 옹호자란 뜻이다. 그러므로 위로를 잘 하는 교사 상담을 잘 하는 교사 그리고 주님앞에 잘 대변하여 고하는 교사 일수록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본다.

그것도 개개인을 향하여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교사의 자질 문제가 나오게 된다.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사 재 교육과 계속 교육을 위하여 제도적인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3)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모든 지혜를 기우려 인간적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것이아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는가? 교사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지혜를 가르친다. (고전2:6-8) 누가 지혜로운 교사인가? 그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애독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깨닫는 자요

하나님앞에 항상 기도하여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자요 생활에 실천함으로 친히 체험하여 얻은 간증이 있는 교사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고전1:21)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교회교육을 할 수가 없는것이다.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교사들이 우리교회에 많이 요구된다.

지혜로운 교사는 어두움의 자세로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광명한 생명에의 길로 구원에의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교육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교육이다.

- (4) 우리(교사들)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교육 하는 것이다.

우리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이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그가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뜻한다.

교회교육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아니 한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가

질때에 비로소 가능 하다. 교회교육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교사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사 그가 참된 교회 교사인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중에 가르치시는 사역이 매우 크시다(요14:26)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였다. 때문에 교회교육에는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육이라야 한다.

성령님은 가르치실뿐만 아니라 생각나게도 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교사는 성령님의 교육적인 역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혀야만 한다. 로이 비 「주크」박사는 “성령과 교육”이란 책에서 기독교 교육의 4 대요소를 성령과 성경과 교사와 학생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령님의 교육적 사역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그는 교회교육의 성공은 바로 성령으로 중생한 교사가 성령의 역사 하심에 붙잡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데 있다고 하였다. 사실 그러하다 교사들의 심령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가르치는 교육은 필경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능히 구원할 수가 있을 것이다.

(5) 힘을 다하여 수고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에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수고와 없이는 아니된다. 배우는자들은 가르치는자의 그 이상으로는 배울수가 없는 것이다. 열심으로 가르치고 땀을 흘리면서 가르치고 힘을 쏟아 가르치고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각오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 4:19) 라고 하였다.

산모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없이는 새 생명을 낳을수가 없듯이 교사가 신령적인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믿음에의 자녀를 얻을수가 없는것이 분명하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이 오늘의 교회 교육에 절대로 필요하다. 이같은 교사들이 많은 교회는 분명히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 할 것이다. 잘 가르치는데 힘

신하고 충성하는 즉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사에게는 배우는 자들도 잘 따르고 순종 할 것이다.

이 상에서 살펴본 교육의 방법론은 어떤 의미에서 교사의 자격론이기도 하다.

그것은 성숙한 교사들이요 믿음에의 장성한 교사들이다. 성숙한 교사가 성숙한 양으로 육성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교사들은 복음의 일꾼(골1:23하)이요 교회의 일꾼(골1:25) 된자들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일꾼은 일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일꾼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 총현의 520여명의 모든 교사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복음에의 일꾼과 교회에의 일꾼이 됩시다.

“심는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데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8)

교사의 일은 복음의 씨를 심는것과 말씀과 사랑으로 물을 주는것과도 같다.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상급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위에 다시 오시는가? 그 이유중에 하나가 각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한대로 갚아 주실 상급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계22:12)

우리 주님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시고 계심을 알아야한다. 주님의 발 앞에서는 그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말기리니”라는 칭찬과 상급을 다 받는 총현의 교사들이 되고 금년 한해동안 16부 주일학교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전체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오는 축복의 해가 되었으면 한다. <끝>

신앙도서소개

영적 침체

영적침체의 원인과 치료

로이드 존스 지음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의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를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축복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걱정과 근심에 억눌려 식욕을 잃고 기쁨을 찾지 못한채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 자신의 비참함과 우울한 모습을 보이게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자신의 무기력함과 비참한 느낌에 빠져 있는 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그와 같은 경험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그들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여러방면으로 애를 쓸 것이다. 그럴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영적침체」의 저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D.M. Leoyd Jones)목사는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료를 말씀에 입각하여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단순히 책상앞에서 그의 지혜를 짜낸 것이 아니라, 30년에 걸친 그의 일선목회현장에서 부딪히고 겪은 다양한 영적 사건을 통

하여 얻어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적 침체의 원인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지 그의 교훈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자라고 말한다. 따라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다.

저자의 모든 저서들이 그렇듯이 그의 저서 중 어느 한권을 붙잡아 읽어 본 자들은 그의 저서들을 끊임없이 찾아 읽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인간이 지닌 문제와 세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있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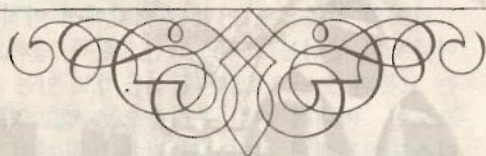
그의 유명한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를 비롯한 모든 저서가 비록 설교로 행해 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인쇄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영적인 축복인가.

바라기는 본서가 지금도 영적 침체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생명력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원하면서 본서를 추천하고자 한다.

추천 / 정관호 목사



교회소식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기념 전국대회 당회장 김창인목사 전야 집회서 설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주최한 한국기독교 선교백주년 기념전 국대회가 지난 4월 4~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월4일 오후7시 전야집회는 1만5천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하구봉목사 사회로 진행 양훈석목사의 기도, 성경계 3장 7~13절 봉독후 충현교회 3백명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뒤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의 목표는...”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

회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고 복종하여 세상끝날까지 천국의 열매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동 선교대회는 4월5일 오전 8시30분 인천 제물포 부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입항 재연식 및 특별예배를 드렸으며, 당일 오후2시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3만5천명의 성도가 초청되어 기념식, 기념예배, 공로자 표창식등을 가

졌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동 전국대회에서 증경총회장을 대표하여 모든 순서에 같이 동참했다.

교육위·기획조정실 연석회의 가져

교육위원회 및 기획조정실 연석회의가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30분 선교관 403호실에서 회집되어 당면한 교육정책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수립을 위하여 교과과정 작성및 교재집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집약시키고 교육연구소를 통하여 연구검토하도록 위임했다.

또, 전교인 성경공부를 목표로 하는 성경연구원의 활성화에 장애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이나 교과과정 수립의 개편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교회버스 각 교구별 운행 전면 폐지키로

그동안 10교구별로 10대의 교회버스가 운행되었으나, 교회당 건축관계로 불요 불급한 재정지출 중지의당회및 재직회결의에 따라 5월첫주부터 교구버스 운행은 전면 폐지되었다.

각 교구는 이점을 참작하여 교통편 이용에 교인 각자가 신경을 써주길 원하고 있다.

교회부흥회 평가회의

지난 4월21일 오후4시30분 기획 조정실에서 85년도 교회 부흥회 부서장 평가회의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 부흥회였다고 공감하고 준비과정에서 및 가지 지적 사항도 나왔다.

그뿐아니라 성가대 인원 동원이 계획보다 차질이 있었으며, 홍보전략은 수준급이었고, 부흥회 기간 전후에 큰 행사들이 겹쳐있어 예상했던 동원인원 보다는 미달했음이 밝혀졌다.

이번 부흥회 연인원 참석자수는 1만2천5백8명으로 집계되었다.

85학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

장학위원회(위원장 윤명식장로)는 85학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급을 받은 학생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총신연구원 장학생(규정12조 1항 2호)

남창우 송균호 한용관
한혜관 한영준 최봉철

2. 일반대학과정 장학생(규정12조 1항 3호)

이경섭 석창훈 최현주
최소영 김춘배

3. 주일학교 모범장학생

김상현 이종훈 문정자
오경숙 김승택 김낙중
이영준 이재우 서일우
이세혁

4. 교역자 및 직원자녀 장학생(규정12조 1항 1조)

이현이 덕조규완
박용인 윤성기 김현주
조성희 임종선 한덕성
김진옥 이재웅 김성욱
김영민 윤혜신 윤혜신
김혜정 장혜진 조유진
장경석 유동협 임삼녀
임기영 유현수 김진오
김창훈 정희경 이동환
이요셉

부활절음악예배 제2부찬양대 주관

충현교회 제2부 찬양대는 지난 4월7일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렸다.

이날 음악예배에서는 헨델작곡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고난과 부활'이 연주되었다.

지휘는 이관섭씨, 반주는 백금옥씨이다.

새가정부 특강

새가정부(부장 윤광일장로)는 지난 4월14일 오전11시 새가정부실에서 최신덕교수(이대교수)를 강사로 특강을 가졌다.

중년부 특강

주일학교 중년부(부장 이병학 장로)는 4월29일 중년부실에서 김영삼 장로를 강사로 특강을 가졌다.

세례·학습·입교 개종자예비공부,

주일학교 세례부는 오는 6월 13~15일까지 3일간 오후 7시~9시까지 교육관 212호실에서 세례·학습자 예비공부를 실시한다.

대상은 세례·유아세례·입교개종·학습문답자 전원이며, 강사는 이성근목사, 구명신 전도사이다.

새신자부는

처음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믿으시는 분(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부득이한 시간 사정으로 새신자부에 참석치 못하는 분은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매주일 2부(10시) 예배후(11시30분)에 본당 103호실에서 6개월 기간으로 공부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새 신자부에서 만나뵙게 될 것을 바랍니다.

충현교회 새신자부

5 月의 교우동정

새교우

논현구역	이선혜	성내구역	공춘환	역삼구역	조경자
역삼구역	김재홍	성내구역	이상순	삼성구역	전순한
역삼구역	김재귀	능동구역	김경식	길음구역	김종한
반포구역	조정식	개나리구역	김옥남	중화구역	박사심
신사구역	최강숙	개포구역	오영희	창신구역	박춘우
신림구역	김희중	논현구역	지영자	중곡구역	김창길
면북 6	강광욱	논현구역	박양수	신정구역	김영자
전호구역	임경미	사당구역	이웅	창동구역	구태희
성내구역	김창기	답십리구역	김용란	취경구역	최용범
풍납구역	김남순	제기구역	장진옥	잠실구역	이정철
논현구역	강영숙	가락구역	한정희	근현구역	정종현
개리구역	유동완	성내구역	이성규	반포구역	이남교
논현구역	오동건	반포구역	옥춘화	과천구역	김영선
신사구역	김순남	역삼구역	박태성	화곡구역	유석
한양구역	김만희	방배구역	박기태	도봉구역	박원규
안양구역	백선홍	논현구역	신장순	종무구역	신현숙
중화구역	김미형	과천구역	배상민	개포구역	정남옥
봉천구역	홍종표	구로구역	김종래	역삼구역	정성모
명륜구역	박노태	잠실구역	김해자	역삼구역	백은주
면목구역	정춘순	쌍용구역	고청자	논현구역	홍명순
삼익구역	유인화	역삼구역	김용래	신사구역	권주영
하왕구역	정봉완	쌍용구역	정지선	과천구역	김유미
차안구역	김정희	수진구역	한옥기	중곡구역	문은숙
역삼구역	김복숙	논현구역	진종필	논현구역	정명희
역삼구역	박영삼	본당구역	현의자	가리봉구역	김용철
논현구역	도대호	인전구역	최영표	면목구역	송순애
성남구역	안순희	신동구역	최용섭	면목구역	박희근
신월구역	김정희	논현구역	이상국	가락구역	손종숙
정랑구역	지원기	광희구역	김재숙	쌍림구역	주남여
성내구역	박형순	남양주구역	조창현	방배구역	고동규
임사구역	정영희	잠실구역	김명애	낙원구역	문소화
사근구역	김혜경	자양구역	박순초	정왕리구역	김진현
장충구역	신미자	사근구역	김미선	면목구역	황윤식
도곡구역	임경희	쌍림구역	최순자	잠실구역	나미란
도곡구역	강문자	장제구역	박용석	광희구역	김은경
역삼구역	김기옥	홍익구역	김중봉	사당구역	송철수
삼성구역	남영호	역삼구역	박양희	혜화구역	김정순
삼성구역	권홍철	역삼구역	손건국	구로구역	엄향순
논현구역	김광수	역삼구역	이순덕	신당구역	안옥녀
동부이역	윤명숙	삼성구역	김준왕	해당구역	김형래
전호구역	최인숙	역삼구역	조경진	역삼구역	오세형
하왕구역	정순애	신사구역	이은수	답십리구역	김효순

결혼

- △박성우군(김명자 집사 아들 정능구역)과 김경수양 4월13일 오후 1시
- △이원상군과 박경숙양(박홍오 집사·김정덕 권사 딸) 4월16일 12시
- △장완규군(장병유 집사 김유순 권사 아들)과 김옥희양 4월16일 오후 1시
- △임상태군과 신경희양(고등부 교사 세례부만주자) 4월20일 12시
- △최재필군(김용실 권사 아들)과 조영미양 4월20일 오후 1시
- △한석봉군(한영기 집사 아들)과 이해숙양 4월20일 오후 3시
- △강성수군(강신명씨 김상순 권사아들)과 차인순양 4월23일 오후 1시
- △박우현군(장지구역)과 광숙단양(선교 찬양 대원) 4월27일 오후 12시 30분
- △이근구군(보문구역)과 문인숙양(신당 구역 김말순씨딸) 4월27일 오후 1시
- △송재남군과 홍희숙양(고흥중앙 목사 유복달사모 딸) 4월27일 오후 2시
- △김성철군(김여수 집사 현재식 권사 아들)과 유숙림 양 4월27일 오후 2시
- △김시원군과 문현숙양(소년부교사) 4월27일 오후 3시30분

- 별세 -

- △이찬숙집사(최지윤, 백숙자, 집사 모친) 4월 8일
- △이호산씨(부천구역 조순희 집사 부군) 4월15일
- △조정익씨(반포 구역) 15일 별세
- △김석기씨(필동 3 - 6 구역) 13일 별세

독자의 편지

★ 하나님의 은혜가 귀교회와「월간충현」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월 보내주시는 월간충현에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해이 해지기 쉬운 믿음 생활에 활력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몇자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부대 군인교회에서

★ 월간충현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은혜가 넘치는 감격을 갖습니다. 글자 하나 하나를 읽어 내려갈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 잡지가 되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김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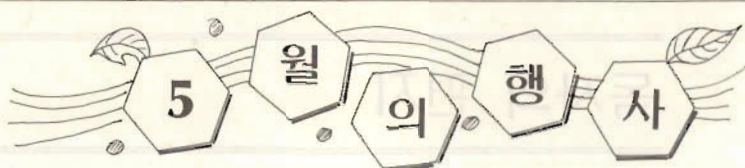
★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귀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한 신앙 월간지 「월간충현」을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습니다. 한번 읽고 또 읽고 해서 진리의 말씀과 각종 교양작품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양신애

★ 농촌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마을 교회 도서관을 찾아가 「월간충현」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에 육신이 몹시 피로하지만 김창인 목사님의 이달의 말씀을 읽고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나며, 피곤이 싹 가실때가 있습니다.
충북 농촌에서 박현달

「월간충현」 독자에게!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발행하는「월간충현」을 받아 보시고 편지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답장을 드려 그 고마운 뜻을 보내고 싶으나 교회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 이 난을 통하여 그 고마운 뜻을 한 묶음 묶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달에 1번 발행으로 격월간으로 발행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월간충현」 홍보출판부 드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회
3 일 / 5 월 정기당회 ☐ 제직회
5 일 / 5 월 정기제직회 ☐ 기획조정실
12 일 / 월간총현 5 월호발행 ☐ 구역권찰회
24 일 / 구역 축호 방문전도 ☐ 예배위원회
26 일 / 교사 헌신예배 ☐ 전도위원회
5 ~ 11 / 제 5 기 70 인 전도요원훈련
23 일 / 군복음화 전도세미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선교위원회
7 ~ 10 일 / 농어촌 부흥회
14 ~ 16 일 / 차량전도
20 ~ 23 일 / 성령 강림 대성회 ☐ 교육위원회
5 일 / 어린이 주일,
11 일 / 경로회
12 일 / 어버이 주일
16 ~ 18 일 / 대·청년 전도집회
23 ~ 25 일 / 중·고생 전도집회 ☐ 6 월 행사는 생략함. |
|---|--|

편집후기

★ 가정의 달인 5 월은 교회행사가 분주하다.
어린이주일(꽃주일) 어버이주일, 경로잔치 등이
푸른 5 월 하늘과 함께 기쁨을 갖다준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것은 이런 연례적인
가정의달에 집착해서 너무 세상적인 재미에 마음이
쏠릴까 심히 걱정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5 월호는 가정의달 특징으로 꾸며
「교회와 가정」을 주제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부모
를 만드는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신앙적 대화 등에
알아보았고, 편지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꾸밈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 보았다.

그뿐 아니라, 해가족 시대에서 3 대가 한집안에
살며 경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가정을 탐방
했다는 것은 가정의달에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 본 교회 당회원인 김영삼장로가 오랫동안 특별기
고를 해왔다.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란 제목으로 집필된 동
내용은 약 4 년간 자택에 은거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서 기도하며 작성한 유익한 설교문이다. 읽는이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아주 죄송스러운 사정을 알려 드려야겠다.

월간총현지가 지난 4 월호 부터는 매월 첫주일 발
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편집을 담당한 사람
이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한주간 늦
게 발행 되었음을 사과드린다.

여러 독자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 드린다.

★ 이번호부터「월간총현」은 격월간제로 발행하게 된
다.

교회당 건축관계로 건축재정이 필요하게됨을 절감
하여 부득이 월간총현도 두달에 1 번씩 발행케 됨을
독자들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란다. 그대신 전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편집되게됨을 약속드린다.

월간총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총현

1985년 5 · 6 월호

제13권 5 호(통권129호)

1972년	4 월	30 일	창 간
1985년	5 월	6 일	인쇄
1985년	5 월	11 일	발행
발행	행인/김	창인	
편집	집인/최	석주	
주	간/이	성근	
홍보출판부장	/김	광신	
편집위원	/장	정일	
	조	현명	
	조	영길	
	조	선근	
	손	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동665-1

전화 / 562-4181 ~ 5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이모저모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주최한 한국기독교선교 백주년기념 전국대회가 지난 4월 4~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전야예배에서는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설교했다. (연인원 약 6만여명 참석))



▲ 남전도회 협의회 (1, 2, 3) 회원들은 고속터미널 광장앞에 노방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교육위원 및 기초실 위원 연석회의광경 (이날 회의에서는 주교교육정책을 논의했다.)



▲ 지난 4월 8~12일 실시된 85년도 교회 부흥회에서는 연인원 1만2천 5백8명여명이 참석했다. (강사 길자연 목사)



▲ 봉사위원회 회원일동은 교회당 주변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했다.



▲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 꽃을 정성스럽게 달아주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어린이는 밝게 키우되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철봉틀에서의 어린이들)

자녀를

사랑하자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